

의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환자에 대한 의학적 개입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그 판단의 기준은 정상성이다. 물론 증강 의료와 같이 정상인에 대해서도 개입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병적이라고 판단된 경우도 마땅한 의학적 개입의 수단이 없거나 개입해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상황에는 개입하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의료활동의 시작인 진단, 즉 환자 상태 파악의 본질은 정상성 여부의 판단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가 정상이라는 기준을 통해 구별하는 비정상적, 혹은 병리적 몸의 상태를 표현하는 용어에는 disease, disorder, disabilities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들 각 용어는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구별되는 지점도 있다. 여기서는 장애(disabilities) 개념이 정상성을 벗어난 상태를 표현하는 여러 유사 개념들 가운데서 위치하는 지점을 밝힘으로써 장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장애의 개념적 지도를 그리기 위해 프랑스의 의철학자 조르주 캉길렘(Georges Canguilhem, 1904-1995)의 논의를 빌리고자 한다. 캉길렘은 의학에서 정상성의 문제를 핵심적인 철학적 주제로 고찰한 철학자이다. 그는 대표작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에서 병리적 상태를 정상상태의 양적인 과잉이나 부족으로 보는 생리학자 클로드 베르나르(Claude Bernard, 1813-1878)의 견해를 비판한다. 베르나르는 병리적 상태는 생리적 상태로 부터 도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캉길렘은 병리적 상태는 생리적 상태와 불연속적이며 질적으로 다른 상태라고 주장한다. 또 캉길렘은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 인체의 정상(해부학, 생리학)을 먼저 배우고, 이후에 병리적인 것(병리학이나 임상과목)을 배우도록 구성되어 마치 병리학이 생리학에서 도출된 듯한 인상을 주지만 역사는 그 반대임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실제로 우리가 인체의 정상 기능을 아는 것은 질병을 통해서이다. 캉길렘의 표현에 따르면 “규칙은 위반에 의해서만 인식되고 기능은 고장에 의해서만 드러난다.”

캉길렘은 이 책에서 크게 네 가지 정상성(혹은 병리성)을 말한다. 의학적 정상성, 정신의학적 정상성, 생물학적 정상성, 사회적 정상성이 그것이다. 이 책은 주로 의학적 정상성을 다루지만, 우리가 논의할 장애는 나머지 정상성들에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정신의학적 정상성은 장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기보다는 정신의학적 정상성을 규정하는 방식이 장애를 규정하는 방식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다. 정신의학적 정상성의 문제는 달리 말한다면 정신질환의 실체성에 관한 문제이다. 생물학적 정신의학이 발전하며 정신질환도 다른 육체적 질병과 마찬가지로 접근하는 관점이 요즘은 우세하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질환의 특수성이 존재하며, 그런 의미에서 정신질환의 의학적 실체성을 부정하고 그것을 사회적·문화적 구성물로 보는 급진적 견해도 한편에서는 주장된다. 거의 동일한 입장을 장애에 대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

몸에 일어난 선천적, 혹은 후천적 생물학적 차이가 장애라는 범주로 규정되고 그것이 사회적 차별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그러했듯이 장애는 근대산업사회의 발명이 된다. 즉 노동시장에 편입되기 어려운 몸들이 장애의 범주로 규정된 것이다. 물론 전근대에도 장애에 해당하는 현상은 존재했으나 그것이 별도로 범주화되지 않았음으로써 구조적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생물학적 정상성의 관점에서 장애를 볼 수 있다. 장애에 해당하는 여러 신체

적·정신적 조건들은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선천적 장애는 생물학적 자연 변이에 가깝다. 위에서 생물학적 정상성이란 표현을 썼지만, 이는 사실 틀린 표현이다. 왜냐 하면 정상이란 가치가 담지된 규범적 개념인데, 자연계에는 그러한 가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의 종 내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변이들 가운데 ‘정상’은 없다. 다만 주어진 환경에서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이다. 우리가 생물 종 내의 변이를 탈가치적 관점에서 바라보듯이 장애 역시 가치에서 벗어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정상성의 관점이다. 사실 이 책에서 강길렘이 말하는 사회적 정상성에 대한 논의는 사회유기체설에 대한 비판으로, 사회적 정상성과 유기체적 정상성을 동일시하는 입장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맥락에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한 맥락이 아니라 사회적 정상성이란 문자적 의미에서 장애를 바라보고자 한다. 장애(disabilities)는 글자 그대로 ‘able’ 하지 않은 상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 주어진 과업의 성취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과업을 주는 것은 사회이며 장애는 사회가 부과하는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장애는 철저히 사회적 범주임을 알 수 있다. 사회가 부과하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정상이고,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정상이 아닌 상태, 즉 장애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구성원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과업이 동일하지 않고 그 종류가 개인의 ‘ability’에 따라 달라진다면 ‘disabilities’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강길렘이 말하는 유기체와 사회의 차이는 유기체에는 모두가 합의 가능한 정상성이 존재하지만, 사회에는 것처럼 합의된 하나의 정상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와 유기체의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는 사회유기체설은 사회에 대해서도 유기체와 같이 하나의 정상성만을 강요하는 이데올로기로 전락할 수 있음을 강길렘은 경계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장애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동일한 정상성을 강요함으로써 생겨난 범주이다. 다양한 사회적 정상성을 용인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장애의 문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